

東醫四象診療醫典에 대한 서지학적 고찰

유준상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의학교실 교수, 상지대학교 한의학연구소

Abstract

Bibliographic Study on the Book Dongeuisasangjinryoeuijeon

Jun-Sang Yu

*Departmen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Korean Medicine, Sangji University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Medicine, Sangji University*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omposition, bibliographic characteristics, and contents of the book, Dongeuisasangjinryoeuijeon(東醫四象診療醫典).

Method

The images of this book published in 1941 at Haenglim publishing company, stored in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were acquired and used as basic data, and books related to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such as Dongeuisasangshinpyun(東醫四象新編), Dongmuyugo(東武遺稿), and Sasangeumgyebibang(四象金匱秘方) were compared.

Result

Many of the data were based on the Dongeuisasangshinpyun(東醫四象新編), and were made with reference to Dongmuyugo(東武遺稿) and Sasangeumgyebibang(四象金匱秘方) partly. This book is thought to be made to be used conveniently for clinicians at the time when data on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was insufficient. In particular, it can be said that the mention of well-established diagnostic method, drugs that cause adverse reactions when a patient of a different constitution takes them and the quatrains of prescriptions using seven Chinese characters in each line are very unique.

Conclusion

Although most of the books, including Dongeuisasangshinpyun(東醫四象新編), were cited, it is thought that the book was well-organized in order to provide good information to the clinicians practicing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at the time. For the original part of this book, further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Key Words : Dongeuisasangjinryoeuijeon(東醫四象診療醫典), Sasang, Constitution, Lee Taebo, Haenglim

I. 緒論

이제마선생(1837-1900)은 그의 독특한 사상철학을 바탕으로 한 사상의학을 창시하였다. 이미 사상철학의 정리는 1893년 『格致叢』를 통해서 이뤄졌으며, 1894년 『東醫壽世保元·甲午本』을 통해서 사상철학에서 사상의학으로의 전환점을 삼게 되었다. 이후 1897년 『濟衆新編』을 완성하였으며, 1894년부터 1900년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 『醫源論』에서부터 『太陰人篇』까지 수정보완을 하여 庚子本을 쓰셨다. 선생이 작고하신 이후 제자들에 의해서 1901년 『東醫壽世保元·辛丑本』으로 세상에 알려져, 현재 『東醫壽世保元』으로 널리 읽히고 있다. 이제마선생의 초기 저작을 알려주는 자료로서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은 선생의 제자였던 崔謙鏞으로부터 1936년 얻은 자료를 金九翊(1880-1969)이 그의 1951년 저서에 수록하면서 알려지게 되었다¹⁾.

사상의학 관련서적 중, 1941년 출간된 『東醫四象診療醫典』의 저술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1941년 이전에 출간된 사상의학 관련서적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1929년 元持常의 『東醫四象新編』, 1936년 李敏鳳의 『金匱秘方』,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지만 1940년경의 『東武遺稿』²⁾가 있다.

『東醫四象診療醫典』은 각 병증에 대한 체질별 처방소개에서는 대부분 『東醫四象新編』의 내용을 답습하고 있으나, 사상체질 유형감별을 소개하는 사상체질진단법에 외부상태, 심리상태, 소질과 특이증, 체질별 素證과 體質病證에 해당하는 건강상태와 병적상태의 소개, 치료원칙, 藥餌의 반응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등 특기할 부분이 존재한다. 또한 타 체질에 사용할 경우에 생기는 부작용을 기록한 『他藥受害例』, 각 처방의 七言絶句詩, 病證 및 證治의 詩括은 이 서적에만 존재하는 독보적인 내용이다.

『東醫四象診療醫典』은 그간 출판년도에 대해서도 제대로 고증이 되지 않아, 1961년, 1978년 등으로 알려져 있었다³⁾.

한편, 본서는 1941년 초판 이후로 수차례에 걸쳐 출판된 것으로 나타나, 국내 한의계에 사상의학을 보급하는 데 기여한 부분이 크리라 여겨진다. 하지만, 『東醫四象新編』의 병증치료부분을 轉載하는 등 다른 서적의 짜깁기라고 여겨질 수 있어, 그동안 『東醫四象診療醫典』에 대한 구체적 연구가 없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東醫四象診療醫典』의 내용체계를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타 서적과의 비교고찰을 진행하여 본 서적의 의의를 밝히고자 하였다.

II. 研究方法

- 『東醫四象診療醫典』의 1941년 출판본은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에서 검색하여 원문이미지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 여기에 나온 것을 기초 문서로 삼았다(Fig 1).
- 국립중앙도서관 한국고전적중합목록시스템에 『東醫四象診療醫典』으로 검색하여 국내 도서관 중 본서를 소장하고 있는 곳의 『東醫四象診療醫典』 서지사항을 확인하여 출판년도, 발행자, 발행기관 등을 확인하였다(Table 1).
- 『東醫四象診療醫典』과 관련이 있는 내용을 『東醫四象新編』, 『東武遺稿』, 『四象金匱秘方』 등의 사상의학 관련서적과 비교하였다.

III. 結果

1. 발행사항

1941년 서울 杏林書院에서 처음 발행된 이후, 1945년, 1949년, 1955년, 1958년, 1961년, 1983년에 출판되어 총 7번 출판된 것으로 보인다(Table 1).

Table 1. Bibliographic Information of Donggeuisasangjinryoeuijeon(東醫四象診療醫典)

| 표지 제목 | 저작자 | 발행자 | 발행년 | 판종 | 소장기관 |
|--------------------|----------------|------|------|-------|---------------|
| 表解式 東醫四象診療醫典 | 행림서원편집부 | 행림서원 | 1941 | 신연활자본 |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과 |
| 表解式 東醫四象診療醫典 | 행림서원편집부 | 행림서원 | 1941 | 신연활자본 | 전남대 도서관 |
| 表解式 東醫四象診療醫典 | 李杏坡 | 행림서원 | 1941 | 신연활자본 | 전남대 도서관 |
| 館英文表解式 東醫四象診療醫典 | 이제마원저, 平原宗軒 편해 | 행림서원 | 1941 | 신연활자본 | 전남대 도서관 |
| 館英文表解式 東醫四象診療醫典 | 이제마원저, 平原宗軒 편해 | 미상 | 1941 | 신연활자본 | 전남대 도서관 |
| 表解式 東醫四象診療醫典 | 행림서원편집부 | 행림서원 | 1941 | 신연활자본 | 경희대 도서관 |
| 表解式 東醫四象診療醫典 | 李杏坡 | 행림서원 | 1941 | 신연활자본 | 전남대 도서관 |
| 東醫四象診療醫典 | 행림서원편집부 | 행림서원 | 1941 | 불명 | 국립중앙도서관 |
| 表解式 東醫四象診療醫典 | 이제마저, 행림서원편집부편 | 행림서원 | 1941 | 신연활자본 | 동국대 경주캠퍼스 도서관 |
| 表解式 東醫四象診療醫典(권1-4) | 이제마저 | 행림서원 | 1945 | 신연활자본 | 경기도 도서관 |
| 東醫四象診療醫典 | 행림서원편집부 | 미상 | 1945 | 신연활자본 | 고려대 도서관 |
| 表解式 東醫四象診療醫典 | 행림편 | 행림서원 | 1949 | 기타 | 부산대 도서관 |
| 表解式 東醫四象診療醫典 | 행림서원편집부 | 행림서원 | 1949 | 신연활자본 | 한림대 태동고전연구소 |
| 表解式 東醫四象診療醫典 | 행림서원편집부 | 행림서원 | 1955 | 신연활자본 | 전남대 도서관 |
| 東醫四象診療醫典 | 이태호 | 행림서원 | 1955 | 신연활자본 | 충남대 도서관 |
| 表解式 東醫四象診療醫典 | 행림서원편집부 | 행림서원 | 1955 | 신연활자본 | 성균관대 도서관 |
| 表解式 東醫四象診療醫典 | 이제마저, 이태호 편 | 행림서원 | 1958 | 신연활자본 | 고려대 도서관 |
| 東醫四象診療의 秘訣 | 행림서원편집부 | 행림서원 | 1961 | 신연활자본 | 동국대 경주캠퍼스 도서관 |
| 東醫四象診療醫典 | 이태호 | 행림서원 | 1983 | 불명 | 동국대 경주캠퍼스 도서관 |
| 表解式 東醫四象診療醫典 | 편저자 미상 | 미상 | 미상 | 기타 | 한국학중앙연구원 |



Figure 1. The picture of Donggeuisasangjinryoeuijeon(published in 1941, source : Seoul K-medi center)

저작자에 대해서 표지에는 杏林書院 編輯部라고 적혀 있으나, 서문에는 본서가 李泰浩(Fig.2)의 저작이라고 天德山人이 서문을 달아 놓았다. 1958년에

출간된 서적에는 이제마 저, 李泰浩 편이라고 적혀 있기도 하다. 1961년에는 『(실제적)東醫四象診療의 秘訣』이라는 책으로 표지가 바뀌어 출판되기도 하였

으나, 내용은 이전의 『東醫四象診療醫典』과 동일하다(Fig. 3).



Figure 2. Picture of Lee Taeh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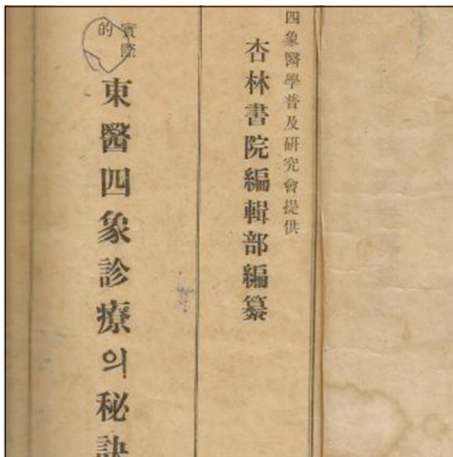


Figure 3. Secret of Dongeuisasangjinryo(published in 1961)

1941년 출판본의 판권 서지사항이 있는 부분에는 著作兼發行者로 平原宗軒이라는 일본식 이름이 적혀 있다(Fig. 1). 직계가족에게 당시 토지문서 등에 적혀 있는 내용을 확인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平原宗軒이 李泰浩의 일본식 이름이라는 것을 확인받았다.

2. 서적의 편제

총 290쪽으로 되어 있으며,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東醫四象診療醫典序(天德山人 題), 敍言(編者 杏坡 識), 범례 1. 處方便誦詩歌用 符號表, 2. 權衡用 符號, 3. 引用書目으로 되어 있다. 天德山人은 杏林書院에서 출간된 다른 책에도 서문을 적어 주었던 인물인데⁴, 天德山人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없는 실정이다.

天德山人은 이제마선생이 4천년의학을 중흥시킨 神이라고 평가하고, 이제마선생이 저술하신 『東醫壽世保元』을 세상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고, 정통한 사람만이 알게 되므로 條別로 구별하고 5篇으로 저술하여 『東醫四象診療醫典』이라 하였다고 밝혔다. 그리고 ‘의학은 동무의 공부한 것만 같지 못하면 의학이 아니요, 처방은 동무에서 나온 것이 아니면 처방이 아니다’라고 하여서 의학과 처방에서 四象을 근본으로 해야 하고 이를 능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권고하였다.

이후에 李泰浩가 본 서적을 만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적고 있는데, 당시의 시대상을 알려준다. 당시에는 사상의학이 그리 널리 알려지지 않아서 ‘의학의 이단자’ 취급을 받고 있다는 실정을 적고 있으며, 李泰浩는 국민체질에도 한의학이 습성에 배어 있기도 하고 간단명료하며 실용화하기에 좋다고 여겨, 본서를 집필하기에 이르렀다 적고 있다. 또한 본인의 창작물이 아닌 보기 좋게 편집한 것이라 밝히고 있다. 본인이 관련된 서적들을 넓게 수집하여 낮에는 행림서원의 고객을 응대하고 밤에는 글을 썼다고 적고 있다.

범례에서는 處方便誦訣에 사용된 약재들의 부호를 만들었음을 밝히고 있다. 예를 들면 熟地黃은 芨, 大黃은 軍 등이라 하였다. 權衡用符號에서는 약의 용량에 대해서 만든 기호를 나열하여 설명하였다. 예를 들면 1錢은 旬으로, 2錢은 念으로, 3錢은 晦로 표시하였다. 引用書目에서는 『東醫壽世保元』을 바탕으로 하되, 관련된 古수의 서적을 참고하며, 개업

의들의 실제 경험을 수집하여 편집하되, 번잡한 부분을 생략하였다고 하였다. 본서의 편집에 湖雲 許奎 선생의 지도와 노력, 秘藏의 圖書 제공을 받았다 기록하고 있다.

이어서 목차가 나오고, 본문이 시작된다.

본문은 제1편 四象概論, 제2편 四象各論, 제3편 四象臨床學, 제4편 四象處方學, 제5편 四象新舊經驗例로 되어 있다(Table 2).

제1편 四象概論에서는 四象의 意義, 四象醫學

의 優越性, 四象人의 類型比例, 四象生理學, 四象病理學, 四象藥理學으로 구성되어 있다. 四象生理學부분에서는 『東醫四象新編』에 나오는 四象臟腑所在圖와 四象全體所屬圖를 인용하여 게재하였다². 四象病理學에서는 張仲景과 岐伯의 학설을 검토정정하였다고 하면서 『醫源論』의 내용을 바탕으로 기록하였는데, 仲景六條病詩括, 四象受病詩括, 岐伯六條病詩括, 岐伯兩感病詩括, 四象受病詩括을 적어서 七言絶句로 핵심부분을

Table 2. Comparison of Contents in Dongeuisasangjinryoeuijeon(東醫四象診療醫典) and Dongeuisangshinpyun(東醫四象新編)

| 東醫四象診療醫典 | 東醫四象新編 | 비고 |
|--|----------------------------|--|
| 敍言 | 東醫四象新編序 | 서로 다름 |
| 引用符號 | 없음 | |
| 權衡用 符號 | 없음 | |
| 引用書目 | 없음 | |
| 제1편 四象概論 | | |
| 1. 四象의 意義 | 없음 | |
| 2. 四象醫學의 優越性 | 없음 | |
| 3. 四象人의 類型比例 | 원문 | 『醫典』에 원문과 해설이 추가되어 있음 |
| 4. 四象生理學 (갑) 臟腑所在圖 (을) 全體所屬圖 | 없음 通四象臟腑所在圖 通四象全體所屬圖 | 『醫典』에 心土, 肺木, 脾火, 肝金, 腎水로 언급 『新編』을 引用·擴充 『新編』을 引用·擴充 |
| 5. 四象病理學 | 없음 | 張機學說의 訂正, 岐伯學說의 訂正 |
| 6. 四象藥理學 (갑) 四象醫의 藥性觀 (을) 經驗他藥受害例 (병) 經驗隨證加減法 | 없음 없음 없음 | 『醫典』의 藥性歌는 東武遺稿를 따랐다 하였고, 四象人 要藥은 『新編』과 동일 |
| 제2편 四象各論 | | |
| 四象人의 類型鑑別 | | |
| 1. 太陽人 | | |
| 2. 太陰人 | 形貌, 臟腑, 性情, 病證 언급 | 『醫典』은 『新編』의 내용을 포함하여 매우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설명 |
| 3. 少陰人 | | |
| 4. 少陽人 | | |
| | | |
| 제3편 四象臨床學 | | |
| 1. 外感諸病 | | |
| 2. 內傷雜病 | 병증별 처방명 | 각 병증에 대한 처방은 『新編』과 동일함. 『醫典』은 『新編』의 내용을 포함하며, 병증에 대한 설명을 추가함 |
| 3. 婦人科 | | |
| 4. 小兒科 | | |
| | | |
| 제4편 四象處方學 | 없음 | 『醫典』에 처방에 대한 구성내용과 주치 및 용량을 七言絶句詩로 표현함 |
| 제5편 四象新舊經驗例 | | |
| (갑) 東武經驗方 | 四象經驗과 동일 | |
| (을) 後學經驗方 | 經驗方目錄과 동일 | |

요약하였다. 四象藥理學에서는 첫째로 사상의학의 藥性觀을 실었는데, 즉 『東武遺稿』에 나오는 각 체질별 藥性歌를 기록하였고⁶, 『東醫四象新編』의 각 체질별 重要藥物(○○人要藥)을 ○○人要藥全目이라고 하여 가나다순으로 엮었다⁷. 둘째로 經驗他藥受害例라는 표제어로 각 체질의 重要 藥物을 타 체질이 복용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을 적어 놓았다. 註로 설명하길, '태음인의 요약인 葛根을 소양인에게 응용할 때는 嘔逆, 소음인에게 응용할 때는 嘔氣'를 초래하는 해가 있음을 실험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셋째로 經驗隨症加減法이라 하여 각 체질별로 頭痛에서부터 瘡疾까지 15종의 병증에 대해서 가감할 藥物을 기록하였다. 註로 설명하길, 頭痛에도 태음인은 桔梗, 소음인은 桂枝, 소양인은 黃連 등의 약을 더해야 되는 것을 실험한 것이다 하였다.

他藥受害例와 관련하여 柳⁸는 약물로 인한 逆作用反應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인체의 기능이 억제되거나 항진·흥분되어 나타난다는 것이다. 체질과 정반대의 不易之氣를 가진 약물은 서로 친화성이 있어서 인체에서 충돌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역작용반응이 나타나지 않으나, 정반대가 아닌 不易之氣의 약물이 체내에 들어가면 충돌이 일어나 역작용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태음인에게 陰實陽虛한 不易之氣의 약물(소양인에게 유익한 약물)이나 陽實陰虛한 不易之氣의 약물(소음인에게 유익한 약물), 또는 陰實陽實한 不易之氣의 약물(태양인에게 유익한 약물)은 모두 충돌이 일어나 기능저하 또는 기능항진으로 역작용의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가령 소양인이 태음인 약물인 薏苡仁, 乾栗, 葛根, 大黃, 五味子, 黃芩, 麻黃 등의 약물을 복용하면 不易之氣의 충돌이 일어나 頭痛, 不眠, 胸煩, 怔忡 등의 기능항진 반응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특정 약물보다 태음인에게 작용하는 약물은 모두 유사한 역작용반응을 보인다고 하여 특정약물의 체질별 반응을 설명한 『東醫四象診療醫典』의 설명과는 다르다.

제2편 四象各論에서는 四象人의 類型鑑別을

기록하였는데, 태양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의 순으로 실었다. 각 체질별 특성을 간략히 기록하였는데, 태양인은 金氣成局, 龍之性이라 하였고, 태음인은 水氣成局, 牛之性이라 하였으며, 소음인은 木體成局, 驪之性이라 하고, 소양인은 火氣成局, 馬之性이라 하였다. 각 체질별 진단에 대해서는 첫째 외부상태를 보는데, 외부상태에서는 容貌, 肌肉, 體格을 적었고, 둘째 내부상태에서는 臟腑大小를 적었으며, 셋째 심리상태에서는 心情, 性情, 特徵을 기록하였고, 넷째 素質과 特異證에 대해서 表證, 裏證, 易感證, 特異證, 다섯째 診斷에 대해서 健康狀態, 病的狀態, 尋常證, 禁忌重證, 禁忌險證, 不治證을 기록하였고, 여섯째 타 체질과의 병증비교, 일곱째 治療原則, 여덟째 藥餌의 반응으로서 위의 『經驗他藥受害例』 중 해당 체질에 해당하는 불량반응을 기록하였다. 아홉째로 平時의 攝生, 열 번째 각 체질별 證治詩括을 表病과 裏病으로 구분하여 기록하였다(Table 3).

제3편 四象臨床學에서는 여러 질병을 外傷諸病 6개문, 內傷雜病 41개문, 婦人科 2개문, 小兒科 2개문으로 총 55개의 門으로 구성하였다. 편제와 처방 구성은 『東醫四象新編』과 같다. 다만 약간의 순서를 바꾼 것이 보이고, 각 門 혹은 病證에 대해서 추가로 註를 달아서 한의학적 병리와 해설을 달았다.

제4편 四象處方學에서는 四象臨床學 부분의 처방을 해설하고 있다. 처방명 아래에 功用이라 하여 主治證을 적었고, 처방구성을 아래에 기록하였다. 이어서 처방명, 구성약물, 구성약물의 용량 등을 七言絶句로 便誦訣을 만들어 기록하였다. 예를 들어 太陰調胃湯의 功用으로는 '黃疸, 傷寒, 時氣頭痛, 身痛無汗, 食滯痞滿, 膝脚無力 等證을 낫게 한다'라고 기록하였고, 便誦訣은 아래와 같다.

太陰調胃湯何治 疸寒感滯脚無力
薏栗各晦蘿煎念 味麥苜桔麻各句
一加一減造化妙 以下九方仔細看
原附九四太陰方 如水有源滾滾流

Table 3. Comparison of Sasang Constitution Diagnosis in Relevant Books

| | 『東醫四象診療醫典』 | 『東醫壽世保元』 | 『東醫四象新編』 | 『家庭必備 四象要覽』 |
|---------------|--|---|-------------------------|--------------------------|
| 外部狀態 | 1. 容貌 2. 肌肉 3. 體格 | 1. 다름 2. 다름 3. 동일 | 1. 동일 2. 없음 3. 동일 | 1. 다름 2. 다름 3. 동일 |
| 2. 臟腑大小 | | 동일 | 동일 | 동일 |
| 3. 心理狀態 | 1. 心情 2. 性情 | 1. 다름 2. 다름 | 1. 다름 2. 다름 | 1. 다름 2. 다름 |
| 4. 素質과 特異證 | 表證과 裏證에 속한 병증을 구별하여 소개 | 원문 나열식 | 원문 나열식 | 없음 |
| 5. 診斷 | 1. 健康狀態 2. 病的狀態 3. 尋常證 4. 禁忌重證 5. 禁忌險證 6. 不治證 | 『醫典』은 『東醫壽世保元』에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1~6번까지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기록함. | | 『醫典』을 그대로 인용해서 한글로 풀어서 씀 |
| 6. 타 체질과 병증비교 | 太陰人 少陰人 병증비교 | 동일 | 동일 | 없음 |
| 7. 治療原則 | 太陰人, 太陽人에서 陰陽과 氣血로 설명 | 없음 | 없음 | 『醫典』을 그대로 인용해서 한글로 풀어서 씀 |
| 8. 藥餌의 反應 | 他藥受害例 | 없음 | 없음 | 『醫典』을 그대로 인용해서 한글로 풀어서 씀 |
| 9. 平時的 攝生 | 性情, 恒心 | 동일 | 동일 | 『醫典』을 그대로 인용해서 한글로 풀어서 씀 |
| 10. 體質別 證治詩括 | | 없음 | 없음 | 없음 |

便誦訣을 해석해 보면 아래와 같다.

태음조위탕은 무엇을 치료하는가? 황달 상한 외감 식체비만 슬기무력 의이인 건을 각 3전, 나복자 2전, 오미자 맥문동 석창포 길경 마황 각 1전 하나를 더하고 하나를 빼어 조화가 묘하도다. 이하의 9개 처방을 자세히 보라. 원래 94개 태음인 처방이 붙어 있으니 물길의 근원이 있어 출렁출렁 흐르네.

편저자는 각 체질의 모든 처방에 대해서 便誦訣을 만들어 처방의 주치증과 처방구성 약물, 용량을 외기 쉽게 만들어 놓아, 학습자들에게 배려를 해 놓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5편에서는 四象人의 新舊經驗例라 하여 첫째 東武의 經驗例는 『東醫壽世保元』에 나오는 처방

에 관련된 부분을 발췌한 것으로 『東醫四象新編』의 「四象經驗」의 내용을 그대로 실었다⁴. 둘째는 後學 經驗例는 『東醫四象新編』의 「太陰人經驗方目錄」, 「少陰人經驗方目錄」, 「少陽人經驗方目錄」으로 되어 있다. 이후에 처방색인으로 마무리 되어 있다.

IV. 考察

일제의 강압적인 한일병합(1910년)이후 1945년 해방 전까지 사상의학 관련서적을 살펴보면, 사상의학 임상의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 元持常(1885~1962)의 『東醫四象新編』⁵이 1929년 출판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朴奭彦의 『東醫四象大全』⁹, 李道耕의 『家庭必備 四象要覽』¹⁰, 朴寅商의 『東醫四象要訣』¹¹, 廉泰煥의 『東醫四象處方集』¹²으로 이어졌다¹³. 이

후 1936년 李敏鳳의 『金匱秘方』⁴, 1940년경으로 추정되는 『東武遺稿』², 1941년 李泰浩의 『東醫四象診療醫典』이 있었다.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東醫四象診療醫典』의 서문을 적어 준 것은 天德山人이며, 『金匱秘方』의 저자는 李敏鳳인데, 李敏鳳의 일본식 이름이 德山敏鳳이었다¹⁴. 德山敏鳳에 대해서 안¹⁵은 官報를 찾아 ‘德山敏鳳’으로 개명한 이름을 찾아냈고, 주소는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이며, 1941년 8월7일부터 의생면허 9,485번으로 등록되었다 한다. 기한이 한정되어 있는 限年醫生으로 취득당시 1944년8월6일까지로 제한되어 있어, 3년간 한시적으로 유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였다. 이를 통해서 李泰浩와 李敏鳳의 관계는 매우 밀접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金匱秘方』은 李敏鳳의 저작으로 1936년 中央印書館에서 일차적으로 발행되고, 昭和15년(1940년) 杏林書院에서 편저자 天德山人으로 다시 발행되어 李敏鳳과 天德山人은 동일인이라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 여겨진다. 李敏鳳이 『金匱秘方』을 쓸 정도로 사상에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東醫四象診療醫典』의 출판에도 어느 정도 기여를 하지 않았을까 추측이 된다. 출판시기로도 1940년 『金匱秘方』(杏林書院 本), 1941년 『東醫四象診療醫典』이 발간되어 그 무렵이 杏林書院에서 사상의학 도서를 적극적으로 출간한 시기라 생각된다.

『東醫四象診療醫典』의 저자로 알려진 李泰浩(1900~1962)는 號가 杏坡이며,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이후까지 한의학 서적을 대량으로 출판하여 한의학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인물이다. 그는 일제강점기인 1923년 서울 안국동에 행림서원을 개점하여 한의학 서적 출판을 시작하였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 한의학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여 한의학 지식을 보급하기 위해 노력하였다¹⁶.

한편, 李敏鳳의 『金匱秘方』은 『四象辨』, 『四象衍義』를 통해서 사상인의 특성 및 다양한 병증에 대한 체질별 單方 위주의 치법을 제시하였다. 『四象辨』은 『東醫四象新編』의 『四象口訣』과 유사하며,

이 내용은 『東醫四象診療醫典』의 각 체질별 특성에도 그대로 인용되었다. 『東醫四象新編』, 『四象金匱秘方』에 공통적으로 태양인은 容貌方圓, 龍之性이라 하였고, 태음인은 牛之性이라 하였으며, 소음인은 驢之性이라 하였고, 소양인은 唇頰淺薄, 馬之性이라 기록하고 있는데, 『東醫四象診療醫典』에도 그대로 인용되었다. 다만, 『東醫四象診療醫典』에서는 소음인의 驢(당나귀 려)之性을 잘못 기록하여 驪(가라말 려)之性이라 하였다.

또 『金匱秘方』에서 태양인은 金氣成局, 태음인 水氣成體, 소음인 木體成局, 소양인 火局成體라 하였는데, 『東醫四象診療醫典』에서 태양인 金氣成局, 태음인 水氣成局, 소음인 木體成局, 소양인 火氣成局이라 하여 매우 유사하다.

체질의 진단방법에 대해서는 체계적 방법을 제시하였다.

체질진단을 위해서 첫째 容貌, 肌肉, 體格과 관련된 외부상태, 둘째 臟腑大小, 셋째 心情, 性情, 特徵과 같은 심리상태, 넷째 素質과 特異證, 다섯째 健康狀態, 病的狀態, 尋常證, 禁忌重證, 禁忌險證, 不治證 등을 기록하여 체질별 素證, 體質病證을 다루고 있다. 여섯째 타 체질과 병증비교, 일곱째 치료 원칙, 여덟째 藥餌의 반응, 약물의 불량반응, 아홉째 平時의 攝生, 열 번째 각 體質別 證治詩括로 마무리를 하고 있다.

체질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신체적인 특징, 심리적·정신적 특징, 평소의 체질별 건강상태, 병적상태에서 드러나는 병증, 타 체질과의 병증비교, 약물반응을 소개하고 있어서 요즘 사상체질을 진단하는데 관련된 내용을 거의 다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체질별 약물 불량반응은 ‘他藥受害例’라는 제목 하에 나오는데, 현재 다른 서적에서는 근거를 찾지 못하고 있으며, 본서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적 부분이라 생각된다. 이 부분은 추후에 『東醫四象要訣』(再版本)에 그대로 인용되었다¹².

또한 체질별 證治詩括 및 제4편 四象處方學에

서 언급되고 있는 사상처방의 七言絶句 便誦訣이 독특하다. 각 처방의 主治證, 약물, 약물용량을 외우기 쉽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아직까지 『便誦訣』도 『他藥受害例』와 마찬가지로 다른 서적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였다. 처방의 便誦訣은 『東醫四象診療醫典』 凡例에서 말한 것처럼 어쩌면 李泰浩가 스스로 만들거나 李敏鳳, 혹은 다른 사상 전문가의 도움으로 만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당시 1900년 동무 사후부터 1941년 『東醫四象診療醫典』이 출간될 때까지는 사상의학에 관련된 서적이 매우 부족했으리라 생각되며, 당시 유행했을 것으로 사료되는 『東醫四象新編』, 『東武遺稿』, 『金匱秘方』 등의 서적을 참고하고 편집하여 사상의학 임상가에게 그간의 사상의학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체질진단법, 타 체질에게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불량반응인 『他藥受害例』와 七言絶句를 이용한 사상처방의 便誦訣은 매우 독특하다 생각된다.

V. 結論

1941년 출간된 『東醫四象新編』은 비록 많은 부분에서 1929년 출간된 『東醫四象新編』을 비롯한 기존 사상의학 서적을 인용하였지만, 사상체질진단을 위해서 外部狀態부터 體質別 證治詩括까지 10여 개의 항목으로 체계적으로 해당 내용을 분류해 기입하였으며, 타 체질에게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불량반응인 他藥受害例를 기록하였고, 사상처방의 主治證, 구성약물, 용량을 외우기 쉽게 便誦訣의 七言絶句로 만들어 당시 사상의학을 사용하는 한의사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였다 생각한다. 이와 같은 독창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더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 본다.

VI. References

1. Lee SK, Song IB. A bibliographical research of the Dongyisusebowon Sasang Chobonguen. J. Sasang Const. Med. 1999;11(1):63-77. (Korean)
2. Hong SC, Ko BH, Song IB. A study on "The manuscripts left by Dong-Mu" for the chronological table of Lee Jae-Ma. Korean Journal of Oriental Medicine. 1996;2:255-268. (Korean)
3. Park SS. The study on the 『DongMuYooGo YakSungGa』. J. of Sasang Const. Med. 2001;13(2):8-27.(Korean)
4. Lee MB, Yu JS. Sasangeumgyebibang. Daejeon:Jumin publishing co. 2007:4-7, 255-264.
5. Won JS, Gwon YJ. Dongeuisasangshinpyun. Seoul:MD world publishing co. 2008:27-335.
6. Lee JM, Ryang BM, Cha GS. Dongmuyugo. Seoul:MD world publishing co. 2008:21-97.
7. Yu JS. A study on the side effects of using herbal medicine assigned to a different constitutional type. J. of Sasang Const. Med. 2009;21(2):115-122. (Korean)
8. Ryu JW. Newly Written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Seoul:Daesung publishing co. 2007:108.
9. Park SE. Dongeuisasangdaejeon. Seoul:Euidohanguksa. 1977.
10. Lee DG. Sasang Constitution Digest(revised). Iksan: Wonbulgyo publishing co. 2018:
11. Park IS. Summary of Dongeuisasang. Seoul:Sonamu publishing co. 1992:71-73
12. Yeom TW. Dongeuisasang Prescription. Seoul: Haenglim publishing co. 2018
13. Youn BH, Park SS. The study on the 『Dongyi Sasang Shinpyun』. J. of Sasang Const. Med. 2001;13(2): 28-48. (Korean)
14. Ryu HY, Shin MG, Maeng WJ. Biographical dictionary of Korean Doctors and Pharmacists. Seoul: Euisongdang publishing co. 1991:71.

15. Ahn SW. Minjokeuihakshinmun. Old Medical Classics Review(886). Sasanggeumgyebibang(2). Available from: URL: <http://www.mjmedi.com/news/articleView.html?idxno=37361>
16. Kim NI. Annals of modern and contemporary figures related to traditional Korean medicine. Paju: Deulnyeok publishing co. 2011:399-401.